

# 일제강점기 관찰부 이전(移轉) 후 관련건축물의 변화에 관한 연구 -수원과 충주를 중심으로-

## Changes of Gyeonggi and Chungbuk Provincial Office Buildings after Relocation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Suwon and Chungju-

최 지 해

Choi, Ji-Hae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한 동 수\*

Harn, Dong-Soo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changes and features of provincial office buildings in Suwon and Chungju after relocation during Japanese occupation. Gyeonggi and Chungbuk provincial offices(Gwanchalbu) were relocated by Japan. Gyeonggi Provincial Office in Suwon used HwaseongHaenggung buildings and moved to Seoul in 1910. After relocation, most of HwaseongHaenggung buildings used for Suwon Governmental hospital(JaHye Uiwon). Suwongun Office, Suwon public elementary school, Japanese Military and Suwon Police station also used HwaseongHaenggung buildings with the Hospital. At first, Japan remodeled local government buildings for their use. Most of HwaseongHaenggung buildings had been destroyed to build new buildings since 1920s. Chungbuk Provincial office in Chungju used DongHeon building which is Chungju local government building and relocated to Cheongju in 1908. DongHeon building changed to Chungju county office after relocation. This building was renovated. Chungju county office moved to other site, this building was used for Chungju county conference room.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Suwon local government buildings were destroyed and replaced with new Japanese style buildings. Chungju local government buildings were also renovated or destroyed.

주제어 : 관찰부, 수원, 충주, 관아건축, 일제강점기

Keywords : Provincial Office, Suwon, Chungju, Local Government Building, Japanese Colonial Period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구한말의 지방제도 개편은 행정구역의 변화 및 근대적인 시설 설치와 함께 지방 도시공간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지방제도는 조선 8도제에서 1895년 5월 26일 전국을 23부(府)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 23부제는 얼마가지 못하고 1896년 고종의 칙령 제35호 반포와 함께 폐지되고 23부제를 대신

하여 칙령 제35호에 따라 수도권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을 13도, 1목, 7부, 331군으로 개편하였다. 경기, 강원, 황해도를 제외한 전라, 충청, 경상, 평안, 함경도를 각각 남·북도로 분리하고, 1도에 1관찰사를 두었다.<sup>1)</sup>

1896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경기·강원도 관찰부의 소재지가 바뀌고, 충주(충북), 광주(전남), 정주(평북), 경성境城(함북), 진주(경남)에 관찰부가 새로 설치되었다. 이후에도 관찰부의 소재지가 1910년 한일병합 전까지 바뀐 곳은 충북(충주→청주, 1908년), 평북(정주

\* Corresponding Author : dsharn@hanyang.ac.kr

1) 김윤미 「개항기 歐美 세력에 의한 국토 및 지역체계의 변화」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1, 93-95쪽

## 8 논문

→영변,1897년/영변→의주,1908년), 경기도(수원→한성, 1910년) 세 지역이다.<sup>2)</sup> 평북이 1897년 1차로 정주에서 영변으로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에 의해 이전하였다. (표1 참조)

본 연구에서는 관찰부가 이전 한 후 비어진 관아건축물이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현재 북한지역인 평안북도를 제외한 수원과 충주의 관찰부 관련 건물들의 변화양상을 당시의 지도, 사진, 문헌자료, 신문기사 및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을 통해 자세히 규명해 보고자 한다.

표 1. 시기별 지방 행정청사의 소재지

	조선시대	1896년	1897~1910년
경기도	한성	수원	수원→한성(1910)
강원도	원주	춘천	춘천
충청도	공주(1602~)	공주(충청남도)	공주
		충주(충청북도)	충주→청주(1908)
전라도	전주	광주(전라남도)	광주
		전주(전라북도)	전주
경상도	대구(1601~)	대구(경상북도)	대구
		진주(경상남도)	진주
평안도	평양	정주(평안북도)	정주→영변(1897) 영변→의주(1908)
		평양(평안남도)	평양
함경도	함흥	경성(함경북도)	경성
		함흥(함경남도)	함흥
황해도	해주	해주	해주

### 1-2. 선행연구 분석

관련 선행연구로는 손정목의 경기, 함북, 평북의 도청이전에 대한 연구와<sup>3)</sup> 수원에 대한 연구로 안국진·최지해의 일제강점기 수원의 관아건축물의 변화에 대한 연구<sup>4)</sup>, 장필구·전봉희의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다.<sup>5)</sup> 일제강점기 충주

2) 경기도관찰부 이전은 한일병합(1910. 08.29) 전에 일본에 의해 결정되었다. (「경기관찰부이사」 「大韓每日申報」 1910.07.10.)

3) 손정목 「日帝強占期の 道廳移轉 - 過程과 結果(1) - 京畿·咸北·平北道廳의 移轉-」 서울시립대학 논문집 Vol.18, 1984

4) 안국진, 최지해 「일제강점기 수원화성의 관아건축 훼손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Vol.29 No.6, 2020

에 도시공간변화에 관한 연구로 전홍식의 연구가 있다.<sup>6)</sup> 그 외 전성현의 일제강점기 부산으로 경남도청이 이전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sup>7)</sup> 최근 안국진·최지해의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수원화성의 관아건축물의 변화양상이 정리·분석이 되었으나 전홍식의 충주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일제의 통치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고 충주의 건축·도시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관찰부가 이전한 지역들의 관련 건축물의 변화양상을 추적·비교한 연구 역시 미진한 실정이다.

## 2. 관찰부 시기 건물사용

### 2-1. 수원-경기도관찰부 시기 건물 사용

정조대 축성된 화성행궁은 왕이 행차 시에 사용되었다가 평소에는 지방관아로 사용되었다.<sup>8)</sup> 1896년 수원에 경기도관찰부가 설치되었고, 정전(正殿)인 봉수당을 중심으로 화성행궁 건물을 사용하였다. 관찰부에는 관찰사 1명과 그 휘하에 주사 6명, 총순 2명, 순검 30명, 서기 10명 등이 배치되었고, 운영비로 인건비 8,288원, 청비(廳費) 1,155원, 여비 1,002원, 청사수리비 85원 등이 책정되었다.<sup>9)</sup> 관찰부와 함께 수원에는 근대식 시설이 생겼다. 먼저 소학교령<sup>10)</sup>으로 1896년에 수원군공립소학교가 수원향교 부근에 신설되었다. 이후 공립소학교는 1906년에 '수원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면서<sup>11)</sup> 행궁 내 객사 건물인 우화관으로 이전하였다. 경기재판소가 관찰부인 화성행궁에 1898년에 설치되었다. 재판권한이 관찰사에 있어 경기도관찰부와 경기재판소가 함께 있는 형태였다. 1908년에 관찰사로부터 재판권이

5) 장필구, 전봉희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8(12), 2012

6) 전홍식 「식민통치전략과 도시공간의 변화 - 일제시기 충주를 중심으로 -」, 한국교통대학교 박사논문, 2015

7) 전성현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지방지배 '전략' 과 도청이전을 둘러싼 '지역정치」, 사회와 역사 126집, 2020

8) 신명호 「행궁제도와 화성행궁」(수원화성, 수원시사, 17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496쪽

9) 차선혜 「수원의 관제 개정과 지방제도 변화」(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수원시사, 3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370-371쪽

10) 1895년 7월 19일 칙령 제145호 '소학교령(小學校令)', 「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7월 19일(정사)

11) 1906년 학부령 제28호로 각 지역의 공립소학교는 공립보통학교로 개칭되었다. 이는 소학교는 일본인학교로, 보통학교는 조선인학교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원공립소학교도 이때부터 수원공립보통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안국진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8, 65쪽)



10 논문

이유로 도청 이전을 건의하였다.<sup>25)</sup> 1908년 5월 25일 (음, 4월 26일) 순종은 ‘관찰도 위치 개정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칙령으로 반포하여 (칙령 30호) 충북관찰부를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하였다.<sup>26)</sup> 당시 충주가 항일운동의 중심이 되면서 1900년대 초부터 일본헌병대와 수비대가 충주에 많이 주둔하였고 대부분의 관아건물을 차지하였다. <표 2>는 충북관찰부 이전 직후인 1909년의 충주 관아건물의 현황을 보여주는데 일본이 들어오는 시기를 보면 1905년을 전후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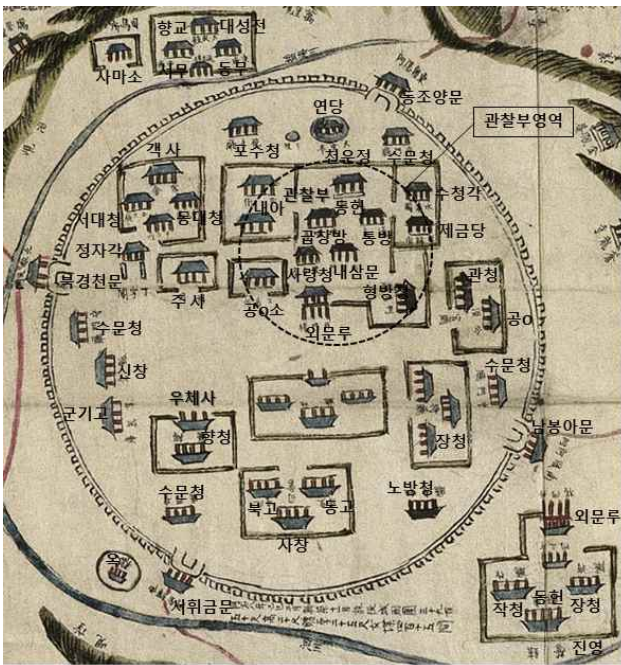


그림 2. 충주목지도(忠淸牧地圖) 1872년 (규장각 소장 재판집)

표 2. 1909년 충주 관아건물 현황 (『韓國忠淸北道一班』)

原廳名	間數	現狀	現用廳	摘要
동헌東軒	28	완전함	군(郡) 사무실	1908년8월 일본수
북동방	3	"	일본헌병숙소	1908년8월 일본에 임대
흡창방	3	"	비어있음	
동익랑	4	"	일본순사숙소	1906년3월 일본수
서익랑	5	반 기울어짐		
내삼문	7	완전함		
중삼문	3	"		
외삼문	3	"		
사령직방	3	"	일본위수병원	1905년11월 일본수

25) 충북 관찰부 이전에 대한 김희찬의 연구를 보면 가미타니 의견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관찰부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충주가 최대 격전장 중의 하나였고 치안에 대한 불안은 관찰부 이전의 좋은 이유 중 하나였다. 종합해보면 이미 일본의 조선의 식민지 전략에 따라 관찰부 이전 계획 중 하나로 충북관찰부를 경부선역과 가까운 청주로의 이전계획이 있었고 가미타니는 충주의 의병활동 및 철도역과의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형식적인 의견서를 제시한 것이었다. (김희찬 「1908년 충청북도 관찰부(도청) 이전에 관한 재검토 - 이전 관련 전후 상황과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충북학, 18) 충북학연구소, 2016)

26) 「관찰부 이설」 『共立新報』 1908.06.24

사령청	9	"	"	"
고직방	4	반 기울어짐	"	"
제금당	21	완전함	일본경찰숙소	1905년7월 일본수
동익랑	4	반 기울어짐	일본부속건물	"
수청각	6	완전함	일본순사숙소	"
대문	3	"	"	"
서기청	13	"	일본위수병원	1905년11월 일본수
"	8	"	"	"
"	34	"	경찰서	1898년9월 일본수
향청	15	"	우편국	1900년3월 일본수
내아	19	"	재판소	1907년1월 일본수
관청	11	반 기울어짐	일본위수병원	1908년12월 일본수
서고	3	"	"	"
주사	5	완전함	우편국부속건물	1900년3월 일본수
포수청	8	"	"	"
사창	3	"	재무서	1907년1월 일본수
창색청	6	"	"	"
진진영동헌	21	"	"	"
동고	4	"	일본수비대	1905년11월 일본수
서익랑	3	"	일본수비대	1905년11월 일본수
삼문	7	"	"	"
내아	12	"	"	"
남익랑	5	"	"	"
서기청	12	"	"	"
"	7	"	"	"
"	6	"	"	"
결봉소	9	"	"	"
순교청	4	"	"	"
사환청	5	"	"	"
초가	13	"	군수숙소	1906년8월 일본이 매입
"	8	"	서기숙소	"
"	4	"	사환숙소	"
연원영동헌	12	"	비어있음	"
대문	3	"	"	"
내아	5	"	"	"

2-3 소결

1896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경기도 관찰부는 수원에 충청북도 관찰부는 충주에 설치되었다. 수원은 조선시대 행행지로 유수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충주는 충주목으로 각 지방의 주요 거점도시들이었다. 관찰부는 각 도를 관할하는 중심 행정시설로 경기도관찰부는 봉수당을 중심으로 한 화성행궁을, 충청북도 관찰부는 충주목의 동헌을 중심으로 한 관아건물을 사용하였다. 관찰부 설치와 함께 공통적으로 공립소학교, 우체사, 전보사 등이 들어섰다. 공립소학교의 경우 설립초기 수원과 충주 모두 향교를 활용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후 일본의 세력이 커지면서 1905년 전후로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이 일어나면서 두 지역 모두 일본헌병대와 수비대가 모여들었고 관아시설을 점거하였다.

통감부시기 이후 일본의 지방행정조직 장악은 관찰부의 이전으로 이어졌다. 경부선과의 거리, 항일운동으로 인한 행정의 불편함으로 충북관찰부는 1908년에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하였다. 1910년, 일본에 의해 한성부가 경기도 관할이 되었고 행정상의 편리함을 위해 경기도 관찰부가 수원에서 한성으로 이전하였다.



### 3. 일제강점기의 건물 사용 변화

#### 3-1. 수원 - 화성행궁의 변화



그림 3. 1911년 수원화성행궁영역 건물배치 (1911년 지적도 재편집)

경기도관찰부가 1910년에 한성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관찰부로 사용했던 화성행궁에는 수원자혜의원이 설치되었다. 한반도에 근대적 의료시설의 설치는 1906년 이후 통감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한일병합 후 각 도의 중심지에 자혜의원이 설립되었다. 일본은 시혜적 구호 및 진료기관을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sup>27)</sup> 수원자혜의원은 1910년 9월 화령전에 개원하였으나 경기도관찰부의 이전으로 봉수당을 중심으로 한 행궁영역이 비자유키기로 결정하였다. 병원 용도에 맞게 행궁을 수선하여 1911년 5월 28일에 수원자혜의원은 화성행궁으로 이전하였다. 봉수당을 병원 본관으로 사용하였다.<sup>28)</sup> 자혜의원은 1909년 전국 관찰부 소재지에 처음 설립되었다. 수원의 경우 관찰부가 옮겨가기 전에 자혜의원이 설치되었고, 관찰부가 옮겨간 후에도 자혜의원은 수원에 그대로 있었다.

화성행궁의 낙남헌은 한일병합 이후에도 수원군청으로 계속 사용하였고, 우화관은 수원공립보통학교, 북군영은 수원경찰서, 남군영은 일본 헌병 분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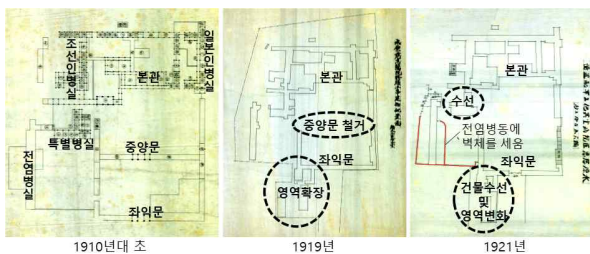


그림 4. 수원자혜의원 공간변화 (안국진, 최지해, 앞의 글, 2020 21쪽)

27) 주상훈, 전봉희 「1910-20년대 관립 자혜의원 계획의 시기적 특징과 변화」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7(11), 2011, 240-241쪽  
28) 안국진, 최지해, 앞의 글, 2020, 25-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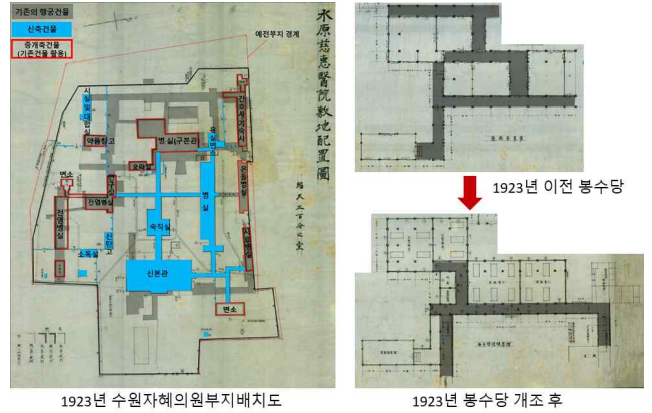


그림 5. 수원자혜의원부지배치도와 봉수당 개조 전후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재편집)

수원자혜의원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봉수당을 본관으로 사용하고 복내당은 조신인병실, 득중정은 일본인 병실, 유여택은 전염병실과 특별병실로 사용했다. 1919년에는 본관 앞의 중앙문을 철거하여 마당을 넓히고 좌익문 전면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1921년에 전염병동 주위로 벽체를 세워 공간분리를 하고, 일부 건물이 수선되었다.<sup>29)</sup> (그림 4 참조) 공간확보를 위해 삼문(三門)과 회랑에 벽과 바닥을 설치하여 실내공간으로 바꾸었다. 회랑의 경우 외측은 기존벽을 그대로 활용하고 내측에는 머름과 창호를 가진 입면으로 바꾸었다. 건물과 건물을 편복도를 추가 설치하여 연결시키고, 퇴칸은 대부분 편복도로 활용하였다. 이는 건물 한쪽 면에 균일하게 조성되어있어 활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이었다.<sup>30)</sup>



그림 6. 1917년 수원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23년에는 대부분의 행궁 건물을 헐고 좌익문 자리

29) 안국진, 최지해, 앞의 글, 2020, 21쪽

30) 장필구, 전봉희, 앞의 글, 2012, 243-244쪽

## 12 논문

에 새로운 본관을 지었다. <그림 5>의 배치도를 보면 본관건물 뒤로 숙직실이 있고 중앙에 열 십(十)자형 복도를 두어 건물들을 연결시켰다. 철거하지 않고 남은 건물 중 본관이었던 봉수당은 일반병실로, 일본인 병실은 간호사기숙사로, 온돌병실, 시료병실, 전염병실은 기능을 유지하고 수선하였다.<sup>31)</sup> 남아있던 행궁건물들은 1936년 이후 유여택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었다.<sup>32)</sup>

표 3. 수원 관찰부관련 건물 변화

	철거 전	철거 후
자혜의원 (행궁영역)	 1914년 <sup>33)</sup>	 1923년 <sup>34)</sup>
수원경찰서 (북군영)	 19세기 <sup>35)</sup>	 1929년 <sup>36)</sup>
수원공립보통학교 (우화관)	 1918년 <sup>37)</sup>	 1933년 <sup>38)</sup>
토목관구 (남군영)	 19세기 <sup>39)</sup>	 1936년 <sup>40)</sup>

31) 안국진, 앞의 글, 2019, 28-36쪽

32) 장필규, 전봉희, 앞의 글, 2012, 241쪽

33)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發展せる水原』, 1914

34)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水原』 1923

35) 『화성도병』,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36)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1 - 水原郡-』 1929

37) 수원박물관 소장

38) 「水原普校落成式舉行」 『每日申報』 1933.12.28.

39) 『화성도병』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40) 관광지도 「관광의 고도, 수원」 1936년 (수원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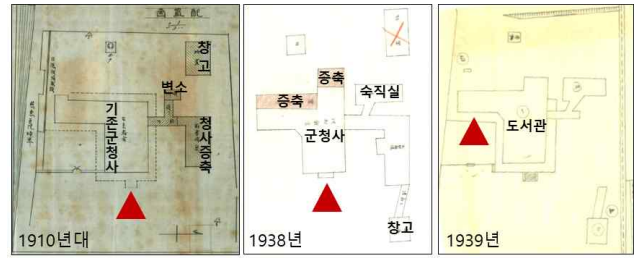


그림 7. 낙남헌의 건물 사용 변화 (안국진, 최지해, 앞의 글, 2020, 22쪽)

낙남헌은 1895년에 수원군청이 설치된 후 일제강점기에도 수원군청으로 사용되었다.<sup>41)</sup> 원래 낙남헌의 정면은 북쪽이었으나 건물의 출입구인 포치를 동쪽에 설치하여 건물의 정면을 바꾸었다. 외부의 퇴칸을 모두 막아 내부공간으로 만들고 외벽은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다. 1910년대는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복도로 연결시켰다. 낙남헌에는 수원군청 외 1916년에 토목관구가 설치되었다가 1932년에 헌병 분대가 있던 남군영 자리로 신축이전을 하였다. 수원세무서는 1934년 5월에 낙남헌에 설치되었으나 1938년에 지금 현재 수원세무서 위치(팔달구 매산로3가 28)로 신축이전을 하였다. 1938년 수원군청이 중영위치로 신축이전하면서 비어진 낙남헌은 개조하여 1940년부터 수원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우화관은 1906년부터 수원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었다가, 1920년대 철거되었다. 일제초기 헌병 분대가 설치된 남군영은 1932년에 토목관구<sup>42)</sup>가 신축 이전하였는데, 이 시기에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군영은 통감부시기 수원경찰서가 설치되었으나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고 1910년 무렵 신축하였다. 당시 일본의 경찰서 공통도면대로 지었으며 외벽은 누름대 비늘판벽으로 마감하였다.<sup>43)</sup>

화성행궁은 일제강점기 동안 수원자혜의원, 수원경찰서, 수원군청, 헌병 분대, 수원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건물을 수선에서 사용하였으나 북군영을 시작으로 낙남헌과 유여택을 제외하고 모든 행궁건물이 철거되었다.

### 3-2. 충주-관아건축의 변화

충북관찰부가 청주로 이전 후 비어진 동헌에는 충주군청이 들어섰다. 충주로 일본인의 유입은 1898년부터

41) 김재국 「수원 근대 건축의 입지와 발달」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 2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161쪽

42) 토목관구는 토목사업을 감독하는 기구로 1916년 경기도 경성, 수원, 이천, 양주에 설치되었다.

43) 안국진, 최지해, 앞의 글, 2020, 22-24쪽



꾸준히 이루어졌고 1905년을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관아건축물이 일본수비대, 헌병대, 위수병원 등의 군사관련 시설로 바뀌었다.(표2 참조) 을사늑약(1905)의 체결로 일어난 의병전쟁의 중심지 중 하나가 충주였고 이 과정에서 충주에 많은 군사시설이 들어오게 되었다.44) 그 외 경찰서, 우편국, 재판소, 재무서, 군수 숙소 등의 시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1916년 충주지도 (출처: 정삼철 번역 『忠州發展誌 (1916年度)』 충주발전연구원, 2012, 3쪽, 재판집)

충주는 시구개정으로 도시구조가 크게 바뀌게 되었다. 시구개정 공사는 1912년 9월 12일에 착수하여 1915년 9월에 준공되었다. 그 과정에서 충주의 성벽과 동서남북에 설치되었던 누문이 완전히 철거되었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총독부 직영공사로 진행되었고, 문묘에서 신사(神社)를 잇는 도로는 시구개정의 부속공사로 시행되었다. 충주는 시구개정 후 일본식 지명으로 주소체계가 바뀌었다.45)

1917년 충주군청 건물현황에 대한 자료46)를 보면(그림10, 표4 참조) 본관인 동헌과 숙직실, 소사실(小事室), 내삼문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무실, 변소, 창고 건물은 일본식 건물이다. 1917년 충주지도(그림9 참조)에 군청 동쪽으로 육군관사와 충주지방법원이 있다. 충주지방법원은 ‘충주구재판소(忠州區裁判所)’라는 이름으로 관찰부의 내아에 설치되었다. 이후 재판사무의 증가로 청사 신축이 필요하여 옛 동문 안쪽에 1,941평의 부지를 선정하고 30,000여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1915년 10월에 준공 및 낙

성식을 거행하였다.47) 배치도를 보면 전면에 청사건물이 있고 후면에 숙직실과 창고가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림11 참조)



그림 9. 1917년 충주지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年月日	棟名	棟數	面積	備註
1915.10	本館	1	1,941	朝鮮總督府
1915.10	宿直室	1	100	朝鮮總督府
1915.10	小事室	1	100	朝鮮總督府
1915.10	사무실	1	100	日本
1915.10	변소	1	100	日本
1915.10	창고	1	100	日本

그림 10. 1917년 충주군청 건물 현황 (국가기록원 소장)

표 4. 1917년 충주군청 건물현황 (그림 10)

건물	건축시기	건물양식
본관	건축연대불명	조선식
사무실	1916.11	일본식
숙직실	건축연대불명	조선식
소사실	건축연대불명	조선식
내삼문	건축연대불명	조선식
변소	1916.05	목조
창고	1916.09	토장조

충주군청 남쪽에 위치한 우편국은 1905년 ‘경성우편국 충주출장소’에서 1906년 7월 1일에 충주우편국으로 개

44) 전홍식, 앞의 글, 2015, 70-75쪽

45) 정삼철 번역 『忠州發展誌 (1916年度)』 충주발전연구원, 2012, 4-5쪽

46)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JA0002574

47) 정삼철 번역 『忠州發展誌 (1916年度)』 충주발전연구원, 2012, 18쪽

## 14 논문

칭하였다.<sup>48)</sup> 충주우편국은 원래 관아건축물을 사용하다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신축계획을 세웠다.<sup>4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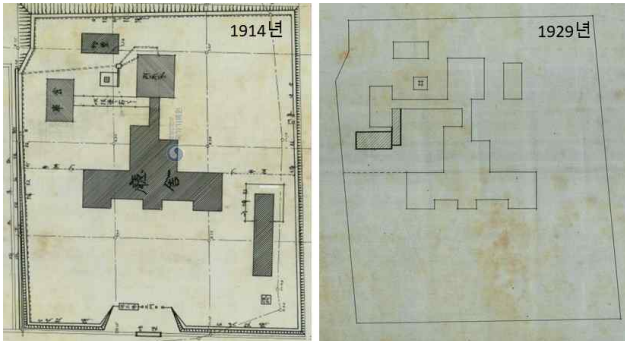


그림 11. 1914년(좌)과 1929년(우)의 충주지방법원 배치도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 재편집)

기존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sup>50)</sup> 1926년 7월 18일에 준공기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sup>51)</sup> 충주군청 건물도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공사 계획을 세웠다.<sup>52)</sup> 충주군청 신청서는 우편국 맞은편에 신축이전 하였고 공사는 충주의 일본인 청부업자가 맡았다.<sup>53)</sup> 옛 충주군청 건물은 군(郡) 회의실로 사용하였다.<sup>54)</sup> 우편국 옆에 위치한 헌병 분대는 1913년에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하였다.<sup>55)</sup> 1916년도 사진에서 헌병 분대가 일본식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표5 참조) 1919년 경찰제도의 개혁으로 헌병 분대는 충주경찰서로 바뀌었고 이 후 경찰서는 군청의 북쪽 대수정(大手町)으로 신축이전을 하였다.

충주경찰서 신축공사는 1920년 9월말에서 1921년 2월 12일까지 진행되었고 1921년 4월 11일에 낙성식을 거행하였다.<sup>56)</sup> 충주의 관아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충주군청 사무실로 사용했던 동헌과 관사로 사용했던 제금당을 제외하고 모두 헐렸다.<sup>57)</sup>

48) 1895년 12월 7일 충주우체사가, 1901년 5월 30일에는 충주전보사가 각각 설치되었다. 1905년 6월 14일 경성우편국 충주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충주우체사와 충주전보사를 인수하였다. 1906년 충주우편국이 설치되면서 경성우편국 충주출장소가 폐지되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49) 「兩郵便局新築-忠州と尙州」 『京城日報』 1925.12.03

50) 「忠州局新築」 『朝鮮新聞』 1926.02.04

51) 「忠州局新築落成式」 『釜山日報』 1927.07.22

52) 「忠州郡廳 新築?定 十月末竣功豫定」 『每日申報』 1929.07.01







53) 일본인 청부업자의 이름은 水黑源一 이다.

54) 「忠州郡廳 新築工事」 『釜山日報』 1930.09.23

55) 「忠州憲兵分隊新建築」 『每日申報』 1913.03.13

56) 정삼철 번역 『忠州觀察誌 (1931年度)』 충북발전연구원, 2012, 47-48쪽

표 5. 충주 관찰부 관련 건물 변화

	1910년대	1930년대
충주군청	 연대미상 <sup>58)</sup>	 1930년 <sup>59)</sup>
충주우편국	-	 1931년 <sup>60)</sup>
충주지방법원	 1916년 <sup>61)</sup>	 1931년 <sup>62)</sup>
일본헌병분대	 1916년 <sup>63)</sup>	-

충주의 관아건물을 관찰부가 이전 한 이후 충주군청, 충주지방법원, 충주우편국, 헌병 분대, 육군관사, 공립보통학교로 사용하였다. 이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동헌과 제금당을 제외하고 관아건물 모두가 철거되었다.

### 3-3. 소결

일제강점기 동안 수원과 충주 두 지역의 관찰부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은 대부분 철거되었다. 수원은 화성행궁에 수원자혜의원, 수원공립보통학교, 수원군청, 수

57) 문화콘텐츠닷컴

[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05&cp\\_code=cp0203&index\\_id=cp02030235&content\\_id=cp020302350001&search\\_left\\_menu=35](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_id=CP_THE005&cp_code=cp0203&index_id=cp02030235&content_id=cp020302350001&search_left_menu=35)

5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6890#](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6890#)

59) 「新築落成した忠清北道忠州郡廳」 『釜山日報』 1930.10.26

60) 정삼철 번역 『忠州觀察誌 (1931年度)』 충북발전연구원, 2012, 128쪽

61) 정삼철 번역, 앞의 글, 2012, 79쪽

62) 정삼철 번역, 앞의 글, 2012, 127쪽

63) 정삼철 번역 『忠州發展誌 (1916年度)』 충주발전연구원, 2012, 80쪽



원경찰서, 헌병 분대가 차지하였다. 일제초기 수원경찰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건물을 수선하여 사용하였다. 수원경찰서는 1910년에 신축공사로 북군영을 철거하였다. 1923년 수원자혜위원회의 신본관 및 기타부속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몇 개의 건물만 남기고 대부분 철거하였다. 남은 건물도 1936년 이후에 유여택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었다. 남군영은 1932년에 수원토목관구가 신축이전 해오면서 헐렸다. 수원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된 우화관은 1920년대 헐렸다. 낙남헌은 1938년 수원군청이 신축 이전한 이후에 수원도서관으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화성행궁은 낙남헌과 유여택을 제외한 모든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일본이 지은 건물로 대체되었다.

충주는 관찰부가 있었던 관아건물에 충주군청, 충주지방법원, 충주공립보통학교, 육군관사, 헌병 분대, 충주우편국이 설치되었다. 충주군청이 1930년에 신축이전하면서 비어진 동헌 건물은 군회의실로 사용하였다. 헌병 분대는 1913년에 기존 관아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세웠다. 충주지방법원은 원래 내아건물을 사용하였으나 동헌의 동쪽 부지로 1915년에 신축이전 하였다. 충주우편국은 기존 부지에 건물을 헐고 1926년에 지었다. 헌병 분대가 1919년 경찰조직으로 흡수되면서 1921년에 신축이전 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충주의 관아건축물은 동헌과 제금당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되었다.

두 지역모두 대부분의 기존 관아건축물은 일제강점기 동안 철거되었다. 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수원은 충주와는 달리 자혜위원이 있다. 1909년 전국 관찰부 소재지에 자혜위원을 설치하던 시기에 수원은 관찰부가 있었으나 충주는 이미 관찰부를 청주로 옮긴 후였다. 수원자혜위원은 경기도관찰부가 이전 한 후에도 수원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도시계획 부분을 보면, 충주는 일제초기 시구개정 사업이 진행되어 도로구조의 변화가 많았으나 수원은 시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수원의 경기도 관찰부와 충주의 충청북도관찰부가 이전한 후 일제강점기 관찰부 관련 건축물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1896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경기도 관찰부는 수원에 충청북도 관찰부는 충주에 각각 설치되었다. 경기도 관찰부는 봉수당을 중심으로 한 화성행궁 건물을 사용

하였고, 충청북도 관찰부는 충주목의 관아건물인 동헌을 중심으로 한 건물들을 사용하였다. 관찰부 설치와 함께 공립소학교, 우체사, 전보사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점차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방의 행정조직까지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1905년 전후로 항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수원과 충주의 관아시설은 일본헌병대와 수비대에 의해 수용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흐름은 관찰부의 이전까지도 이어졌다. 먼저 충주의 충청북도 관찰부는 경부선역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것과 충주가 항일운동의 중심지가 되면서 행정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1908년에 청주로 이전하였다. 수원은 1910년에 한성부가 경기도 관할이 되면서 경기도의 중심도시 역할을 잃게 되었고, 행정상의 편리함을 위해 경기도 관찰부는 수원에서 한성으로 이전하였다.

관찰부 이전 후의 건물사용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 화성행궁은 수원자혜위원이 화령전에서 옮겨왔고, 행궁 내 낙남헌에는 수원군청이, 우화관은 수원공립보통학교, 북군영은 수원경찰서, 남군영은 일본헌병분대가 차지하였다. 수원자혜위원은 일제 초기에는 건물을 부분적으로 수선하여 사용하였다. 1923년에 자혜위원의 본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건물은 일부만 남기고 철거하였다. 1936년 이후 수원자혜위원에 있던 기존건물은 유여택을 제외하고 모두 헐렸다. 수원경찰서로 전용된 북군영은 1910년에 철거되었고, 수원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된 우화관은 1920년대에 철거되었다. 남군영은 일본헌병분대로 사용하다 1932년 수원토목관구가 신축이전하면서 헐렸다. 수원군청으로 사용된 낙남헌은 일제강점기 동안 헐리지 않았다. 수원의 관찰부관련건물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유여택과 낙남헌을 제외 하고 모두 철거되었다.

충주의 동헌을 중심으로 한 관아건물은 중심건물인 동헌에 충주군청이 설치되었고, 그 외 일본육군관사, 헌병 분대, 충주지방법원, 충주우편국, 충주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되었다. 충주군청으로 사용된 동헌은 용도에 따라 수선하였고 1930년에 신축이전하면서 비어진 동헌건물은 군회의실로 사용하였다. 내아에 위치했던 충주지방법원은 1915년 동헌의 동쪽 부지에 신축이전을 하였고, 동헌의 남쪽에 위치한 헌병 분대는 1913년에 기존건물을 헐고 신축하였다. 충주우편국은 기존건물을 수선하여 사용하다 1926년에 일본식 건물로 새롭게 지었다. 충주의 관아건축물은 일제강점기동안 동헌

## 16 논문

과 제금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되었다.

두 도시의 관찰부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의 이용행태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자혜위원의 존재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자혜위원은 1909년 전국의 관찰부 소재지에 설치되는데 이 시기에는 충주는 충북관찰부를 청주로 이전한 이후지만 경기도 관찰부는 수원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수원에는 관찰부를 활용한 자혜위원이 설립되었지만 충주에는 자혜위원이 설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도시 관찰부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측면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되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경성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에 시구개정사업이 추진되면서 충주도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시구개정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충주읍성이 철거되었고, 도로구조가 변하고 일본식 지명으로 바뀌었다. 반면 수원은 시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분적인 도로 확장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 성곽 도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 나감으로서 다른 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향후 본 연구는 동일한 분석 관점을 통해 관찰부 영역의 변화양상을 다른 도시로 확대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지방거점도시의 핵심 영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근대적 도시공간이자 식민지 도시공간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1. 김윤미, 「개항기 歐美 세력에 의한 국토 및 지역체계의 변화」,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1
2. 김백영, 「근대 식민도시 수원의 형성과 성격」(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 2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3. 김재국, 「수원 근대 건축의 입지와 발달」(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 2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4. 손정목, 「日帝强占期の 道廳移轉 - 過程과 結果(1) - 京畿·咸北·平北道廳의 移轉-」, 서울시립대학 논문집 Vol.18, 1984
5. 신명호, 「행궁제도와 화성행궁」(수원화성, 수원시사, 17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6. 안국진,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8
7. 안국진, 「일제강점기 수원관립건축 훼손과정에 관한

-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9
8. 안국진, 최지혜, 「일제강점기 수원화성의 관아건축 훼손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Vol.29 No.6, 2020
9. 이상해, 「화성 행궁의 주요 건물」(수원화성, 수원시사, 17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10. 장필구, 전봉희,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위원 전 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8(12), 2012
11. 전성현,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지방 지배 '전략' 과 도청이전을 둘러싼 '지역정치」, 사회와 역사 126집, 2020
12. 전홍식, 「식민통치전략과 도시공간의 변화 - 일제시 기 충주를 중심으로-」, 한국교통대학교 박사논문, 2015
13. 전홍식, 「일제침략초기 지역체계의 식민지적 재편과 도시성격의 변화 - 충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2, 2018
14. 정삼철 번역, 『忠州發展誌 (1916年度)』, 충북발전연구원, 2012
15. 정삼철 번역, 『忠州觀察誌 (1931年度)』, 충북발전연구원, 2012
16. 차선혜, 「수원의 관제 개정과 지방제도 변화」(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수원시사, 3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17. 차선혜, 「한말 지방제도와 통치조직의 변화」(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수원시사, 3권),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18. 「고종실록」, 고종 32년(1895) 7월 19일(정사)
19. 「共立新報」, 1908.06.24.
20. 「京城日報」, 1925.12.03.
21. 「大韓每日申報」, 1910.07.10.
22. 「每日申報」, 1913.03.13.
23. 「每日申報」, 1929.07.01.
24. 「釜山日報」, 1927.07.22.
25. 「釜山日報」, 1930.09.23.
26. 「朝鮮新聞」, 1926.02.04.
27. 중앙일보 2017.12.15.
28.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29.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
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접수(2021. 03. 14)

수정(1차:2021. 06. 20)

게재확정(2021. 07. 07)